

하류계급의 고부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만며느리의 지각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ship
in the low clas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강사 裴善姬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Lecture : Sun Hee, Ba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사례분석 및 해석 |
| II. 하류계급의 고부관계의 특성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testify nature of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 in the low class. It was assumed that it's relationship would be 'neglect' or 'interdependent' for their economic hardship by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relies o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pproach the most inside of the very complicate and delicate human relationship such as the mother and daughter-in-laws one.

The findings showed that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 in low class was 'neglect' or 'conflicting'. It was because they live separately and the daughter-in-law is not able to meet the demand from her mother-in-law due to her own economic hardship.

* 본 연구는 배선희(1996)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하류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며느리의 경험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간층을 연구대상¹⁾으로 삼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이론에 의하면, 가족 현상이라도 계급별 측면을 고려할 때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한다(이재경, 1992:117).²⁾ 실제로 우리의 가족연구에서도 단일계급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계급별 비교를 통해 가족현상의 계급별 차이를 밝히고 있다.³⁾ 그런데 아직까지 고부관계 연구에서는, 한남제(1984:225)도 지적하였지만 중류층 이외의 다른 계급을 대상으로 했거나 계급별 차별성에 착안하여 접근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하류계급에서의 고부관계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 지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도시지역의 하류계급과 농촌지역의 물질기반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을 조사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박부진, 1994)처럼 상호의존적인 긍정적 측면의 고부관계 유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고부관계가 존재하는지 심층면접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맏며느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부모와의 동·별거 여부와 그 동기,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험, 그로 인해 며느리가 겪는 고통의 여부와 그것을 표출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항

목들은 하류계급의 열악한 물질기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고부관계의 성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고부관계 연구를 하류계급으로 확대시켜 그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고부관계 연구의 축적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실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규명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목적이 하류계급의 고부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 하류계급에 일반화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하류계급의 고부관계의 특성

하류계급은 노동자계급과 빈민계급으로 대표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 계급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고 어떠한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노동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이 생계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계급의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하류계급의 이와 같은 빈곤상황은 가족 내에서 정상적인 재생산이나 정서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간의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

생계 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주의 저임금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계급에서는 소득결합(income-pooling)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의 취업이다. 다른 계급에 비해 하류계급에서 기혼여성 취업

1) 선행연구중 유가호(1976)의 연구만이 제목에 중산층이라는 연구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연구도 내용을 보면 중산층임을 알 수 있다. 중산층에 연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중산층 가족이야말로 한국의 가족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명분도 살리고, 표집대상을 구하기 쉽다는 점에서 연구의 편의성도 높고, 대부분의 연구자가 중산층의 배경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사한 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온 탓일 것이다(이동원·함인희, 1992:151)

2) 이는 엥겔스(1884/1972)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계급 및 계층에 따라 가족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계급분화적 가족이론'에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 많은 가족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조은, 1990:202).

3) 단일계급에 관한 것은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0, 1994)의 『한국가족론』, 『여성과 한국사회』를, 계급별 비교는 김영관(1988), 백옥인(1995)의 논문을 참조.

물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취업은 자아실현이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구주(가장)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주로 막노동, 도시 중상류층의 가사노동, 노점상, 행상 등의 영세산업, 가내부업의 일을 하고 있다. 빈곤가족을 조사한 조옥라(1990), 조은(1990)의 연구에서 하류계급의 이러한 측면은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하류계급의 특징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 상태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혼 여성의 취업은 이 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급에서는 자녀세대와 마찬가지로 부모세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계급에서는 공간부족이나 이농으로 인하여 다른 계급에 비해 부모와의 동거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하류계급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부모부양의 사례가 적으며 상호간의 경제적 교환도 저조하고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도 약화되어 있다고 한다(이효재 외, 1991). 이러한 사실은 이 계급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친척간의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변화순, 1990). 김주희(1990)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도시의 저소득층은 그들이 처해 있는 매우 제한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와의 경제적 호혜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빈곤가족의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열망하는 것만큼 양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계급의 고부관계는 방기(放棄)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따로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부딪치는 기회도 적고, 또한 각 세대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서로 교류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대체로 방기형태의 고부관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계급에서는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의

측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김미숙(1990)의 '중소도시지역의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격'이라는 연구에서 중소도시 지역은 3대로 구성된 가구의 상대적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경제적 빈곤이 이들로 하여금 혈연에 기반하여 상부상조적 생활양식을 갖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류계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물질적 기반이 약한 농촌의 고부관계를 연구한 박부진(1994)의 연구는 도시 하류계급의 물질기반이 농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류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물질기반이 열악하여 며느리는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보완적인 고부관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류계급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방법

하류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질적 조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고부관계는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 조사방법보다는 질적 조사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방법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상 생활에 관심을 두어 어떠한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Taylor & Bogdan, 1984; Gilgun, Daly & Handel, 1992). 다시 말해 누구나 다 아는 일상 생활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질적조사 방법이다. 또한 질적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진실이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견해

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해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ylor & Bogdan, 1984).

이러한 사실은 가족의 계급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고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물적기반이 열악한 하류계급의 고부관계를 파악해 보려는 본 연구의 의도에 질적조사방법이 적합함을 말해준다. 즉,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고부관계성격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또 이를 통계수치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양적 조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적 조사방법이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고부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질적 조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과정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해근(1982)의 계급분류방법에 따라 남편의 직업이 하류계급의 범주(비공식 부문의 주변적 노동자나 농업노동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되,⁴⁾ 시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만며느리이면서도 본인은 시어머니가 아닌 결혼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만며느리로 한정된 이유는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장남이 부모부양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실제로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만며느리(외며느리 포함)를 조사하는 것이 고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한 지 3년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그 이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부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느리이지만 시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선정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므로 며느리의 입장에서 본 고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 그 성격을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인 만큼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정보 제공자를 만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는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의 소개로 선정하였다. 하류계급은 면접에 응해 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 실제로 3사례 만을 면접했을 뿐이다.⁵⁾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1995년 6월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면접은 연구자 본인에 의해 수행되었고 한 사례를 면접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당시에 파악이 되지 않은 문제들은 전화로 추후 질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주로 응답자의 집이나 응답자를 소개해 준 집에서 이루어졌다.

질문 방법은 비표준적 방법을 사용해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의 기본줄기를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적합한 추가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은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응답자들은 자유로이 이야기하도록 권장되었다. 면접 내용은 응답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하였고,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하여 이를 전부 필사하였다.

IV. 사례분석 및 해석

【사례 1】

남편은 장남, 45세이고 국민학교 졸업. 결혼 당시 구로공단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미장이 일을 하고 있

4)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5) 빈민지역에 있는 놀이방과 동사무소를 통해 사례를 찾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고 또한 취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다. 며느리 42세, 국졸, 지금까지 구로공단 직공, 구슬짜기, 야채 행상과 같은 일을 했으나 현재는 남편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 현재 14평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시모와 따로 살고 있으며 결혼 23년째이다. 22살 된 아들과 19살 된 딸이 있다. 딸은 공간 부족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다. 생활은 남편이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 본인이 번 돈으로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67세, 손녀와 살고 있고 방세와 이자로 생활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미장이였으나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장남에게 유산 상속은 없었다.

【사례 2】

남편은 장남, 32세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만화 밑그림 그리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서 불안정하다고 한다. 부인은 33세이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남편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정적이지는 않다. 면접 당시에는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결혼 6년째이고 5살된 아들이 하나 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며, 산동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100만원 보증금에 10만원 월세인 방 1칸에 부엌이 딸린 다세대 주택에 산다.

시어머니는 58세, 산동네 월세인 방 1칸에 시동생과 살고 있다. 생활은 시동생의 수입으로 한다. 시아버지는 장남이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사례 3】

남편은 장남, 39세로 고등학교 졸업, 현재 회사원(기술직)이다. 며느리는 34세로 고등학교 졸업. 슈퍼, 식당일 등을 했고 현재는 목욕탕에서 때미는 일을

하고 있다. 결혼 11년째이며 시어머니, 자녀 2(12살, 8살)와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63세이며, 39세에 혼자 되어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 시누이는 결혼하였지만 문제가 있어 현재 친정에 와 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용돈 쓰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이 집의 생활비는 아들과 며느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류계급의 특징은 부모-자녀세대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며느리가 전부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취업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해 왔지만 현재는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세대 모두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①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a. 현재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그 원인

이 계급에서는 남편이 장남이긴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와 따로 살고 있었다(사례1, 2). 이들의 분거⁶⁾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시부모가 장남과 함께 살기 싫어하여 따로 사는 경우이다(사례 1).

“같이 안 산다 그러더라고. 재네 아빠 때문에. 혼자 살고 있어. 아들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걸 넘보겠어.”

(사례 1)

우리사회에서는 부모가 장남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권규식, 1973; 황춘선, 1979; 이경애, 1981).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거 이유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시댁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그 이유

6) 「분가」는 기혼남성이 결혼 후 양친의 집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현재 시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이들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부모와 같이 살 것이라고 하므로 이들은 「일시적 독립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가」보다는 「분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최재석, 1990:206).

로 들 수 있다.

“처음부터 따로 살았는데. 같이 살 형편이 안 됐어요. 시집에 같이 들어가 살 방이 없었어요. 방 1칸이라서.” (사례 2)

이는 하류계급이 갖고 있는 열악한 물적 상태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이유이다. 이 요인은 가족원들이 그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분거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하류계급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분거 이유는 부모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동거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 1)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부는 남자 22살, 여자 19살에 구로공단에서 만나 임신하고 단칸방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당시 시댁식구들은 이들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였고, 돈까지 주면서 중절 수술을 하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아주 싫어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착실하게 일하지도 않았지만 맨날 술먹고 나쁜 짓을 하여 이미 부모님 눈 밖에 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례 1)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행실이 좋지않을 때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론 (사례 1)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급의 고착화가 심해져서 하류계급의 생존자체가 큰 문제로 부각될 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동거 거절에 대해 며느리는 매우 서운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를 시부모가 자기 남편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같이 안 살겠다고 그럴 때에는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게 왜 섭섭하냐면 자식을 자식으로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거야. 말인데 언젠가는 같이 산다는 소리를 해야지.” (사례 1)

반면 (사례 3)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이 장남이어서 처음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다.

b. 앞으로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장남이 부모부양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들에게 강한 부모부양의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현재 동·별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후에는 같이 살 것이라고 한다(사례 1, 2, 3).

“재네 할머니가 몸도 못 쓰고 그러면 나는 같이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아무리 자기네가 나한테 욕을 하고 악담을 해도 아들이 잘못하면 다 내가 욕먹지. 직접 나한테는 안 해도 그게 그렇게 가슴 아파요.” (사례 1)

“나도 100% 나오고 싶은데도 이삿짐, 학교 등 여러 가지로 마땅찮아. 여러가지로 복잡해. 그래도 나오고 싶어. 남편에게도 나가 살자 그러지. 물론 나가 살자 하기가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나오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이사 자체는 쉽지만 직장, 학교 등. 딱 노인네 박차고 나온다니깐 그게 또 그렇더라구.” (사례 3)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시어머니가 자식과 동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고정자, 1989)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자녀세대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며느리가 갖고 있는 동·별거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간에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같이 살고 싶은 마

음은 없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같이 살아야 하며, 또한 현재 분거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같이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가족, 특히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 이데올로기로 작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들 사례들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분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노부모와 성인자녀, 특히 장남과의 동·별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하류계급의 경우 공간협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물적기반이 열악한 하류계급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혼자 살게 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

②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호관계

a. 갈등을 느낄 때

<경제적 측면:시부모의 경제적 방기 혹은 요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만은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시어머니가 자식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사례 1, 3).

“구로동에 살다가 임신하고 그래서 일을 못하니깐 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 방세를 주면 방을 하나 빼 준다고 했으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방은 많으니까 세 놓은 걸로. 재네 아빠가 돈을 벌어 오지 않으니까 방을 안 빼주는거야. 내가 창피해. 배도 이만큼 부르지. 거기 살면서 방을 안 빼 주니까 잘 데가 없지. 거기도 애들(시동생과 시누이)하고 방 한 칸에 자니까(방 1칸에 7명이 잠). 다른 곳은 다 세 놓았으니까. 비안 오는 날은 자리 깔아 놓고 옥상에서 자고 비오는 날은 부엌에 명석 깔아 놓고 잤지. 해산 날 가까이돼서 시아버지가 다쳐서 방에 누워있는데 같은 방에서 애를 낳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분가하게 됐어. 그리(산동네 두사람이 누울 수 있는 1칸짜리 방)로 이사갔는데 재네 할머니가 쌀 8kg, 연탄 15장 주고 가더라

고. 그게 전재산 몰려 받은 거야. 그 다음은 굶어 죽든지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지. 알아서 하라고.”

(사례 1)

“뭐가 섭섭하냐면 우리가 만인데 물론 아빠가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옛날같이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엄마가 아니야. 자기 벌어서 자기 쓰시고 자기 약 드시고 딸 해주고, 내 입장에서서는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데 아들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깐 그게 불만이지.”

(사례 3)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존 때문에 아들부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며느리는 그 원인을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는 움켜쥐는 성격이거든. 자식에게 배 풀지를 얹어. 자식들이 그게 불만이다라고. 부모가 되어 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엄청 독한 사람이야. 애가 홍역하는 데도 한번 와 보지도 않고 밥을 굶는다 그래도 안와 봐.”

(사례 1)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당신 생일날 늦게오고 안오고에 화가 나시지. 기본적으로 너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고 바라시는게 많으시죠. 당신 생활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끝없이 쫓죠.”

(사례 2)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며느리의 눈에 비치는 시어머니의 이기성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생계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 주희(1990), 이 효재(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요구에 대한 불만이다. 며느리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생활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결혼식에 든 비용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갚으라는 것에 대해 며느리는 흥분하고 있었다.

“신혼여행 갔다 오니 아들 장가드는데 200만원 빚 컸으니깐 다달이 5만원씩 갚으래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죠.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자식이 결혼하면 부조금으로 결혼식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5만원씩 드릴 형편도 아니었고 또 그때는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5만원씩 드리지 않았어요.” (사례 2)

결혼식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외에도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녀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간혹 요구하는 목돈은 처음에는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보내 주었지만 지금은 제사, 명절을 챙기는 것 외에는 시댁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되면 드리다가 안되면 못 드리죠. 다달이 드리진 않았어요. 89년 부친에서 시작했는데 100만원에 월세 오만오천원. 한 달에 방세만큼 생활비를 드린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하면 어머니가 직장을 안 다니시고 집에서 외손녀를 봐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대신 딸 애 봐주고 생활비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나가 책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제가 방관을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목돈을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해 드리기도 했는데. 내 형편에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빚을 내서 드리는 형편이니깐 그게 불만스럽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구요. 요사이는 안드려요.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남이니깐 제사, 명절 때 그걸 다 우리가 책임지고 장남이니깐 그런 경비는 대요. 그 외에는 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 2)

이상의 사실을 요약하면 이 유형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과 과도하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 등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간에는 특별한 행사(생일, 제사 등)를 챙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인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규범처럼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이미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례 1)의 진술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주고받고는 안 하지. 보태주진 못 하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게 하나 있어. 보태 달라는 소리 안하거든. 생활비, 용돈 달라든지 그러지는 않지. 무슨 날 되면 내는 돈 있지. 생활비 주는 건 없지.” (사례 1)

그러므로 하류계급의 경우 경제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바로 그 경제적 빈곤 때문에 실제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서로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세대가 각자의 생존 해결이 더우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에 대한 경제적 보조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시어머니의 무책임>

이 유형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불만 중의 하나로 시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사례 1, 2, 3). 이것은 다른 연구(송경아, 1987)에서 며느리의 갈등원인으로 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이기적 태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르치려고는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린 것 같아요.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어야만 학교를 보냈는데 남편은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사례 1)

“자식만 낳아 놓으면 자기 책임 다했다고 생각해서. 전혀 다른 것에는 신경 안쓰고.” (사례 3)

이들의 진술에는 부모가 무책임하여 남편을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현재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사례 2)는 이 불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와 봐야 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당신 몸이 불편하시다고 안 오시는거예요. 그런 것에도 제가 못마땅했죠. 아무리 책임감도 없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어도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고 나물 캐러 충청도로 어디로 다니셨고 실질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것은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당신 생일날 늦게 오고 안 오고에 화가 나시지 기본적으로 너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고 바라시는 게 많으시죠. 당신 생활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끝없이 컸죠.” (사례 2)

이 유형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은 시부모가 자식을 방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 계층에서 자녀에게 투자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빈곤 때문이지 부모들 자신들의 삶을 운택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자녀 양육 거절〉

하류계급의 경우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생계 문제 때문에 여러 명의 가족원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 주기의 전반기에는 경제적 빈곤 때문에 특히 더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녀양육은 큰 문제로 대두된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며느리는 집에서 하는 일(예, 구슬 꿴기)을 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 2)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 일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가해 살지만 그 당시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이양육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우리 00가 5개월 되었을때 생활비를 5만원 드린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에게 나 일하러 가니깐 애기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당시 시어머니는 일을 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봐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옆집

에 부탁했죠. 11개월부터 놀이방에 맡겼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례 2)

최근 노인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거절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불만은 비단 하류계급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각 계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간계급 이상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 손자양육을 부담으로 생각하여 거절할 수 있지만 하류계급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언제 다시 취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이 계급에서는 <과중한 가사노동, 프라이버시 침해, 잔소리>와 같은 불만이 나타났는데, 이 불만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경우 어느 계급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b. 고마움을 느낄 때

이 계급의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별다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고맙게 느낄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사례 1, 2, 3).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깐 고맙게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당신이 힘드시지만 살려고 하는 쪽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 하는 쪽인데. 시어머니는 고스톱치고 다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밥을 새로 고스톱친다고. 그러면서도 고스톱치는 것 말리지 말래요. 그게 낙이라고. 다리 아프다고 노인네가 그러고 다니시니.” (사례 2)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호관계 부분을 요약하면 이 유형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애정은 없고 불만만 있을 뿐이었다. 경제적 요구나 아니면 경제적 방기, 시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 불만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았다.

③ 고부관계가 며느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 계급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갈등이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어머니에 대해 미운 감정과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시부모와 동거하는 (사례 3)를 제외하고는 크게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리면 그만인데.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릴 말이 있고 진짜 내 뼈 속 깊이 사무쳐 갖고 진짜 이것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심할 때는 누구 말마따나 ‘왜 안 돌아가시나’ 그말이 나온다고.” (사례 3)

(사례 3)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자녀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데다 간섭과 심한 잔소리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극단적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신체적으로 여러가지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④ 며느리의 갈등해소방안

〈호소〉〈털어놓기〉

이 계급의 표출방식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무능력으로 고부간에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어머니 때문에 심한 갈등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1). 그러므로 특별한 표출방법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례 2)의 경우 시어머니의 부당한 금전요구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며느리 본인도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시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크게 갈등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갈등을 느끼는 그 당시 남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해소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례 3)는 고부가 동거하면서 부딪히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 참고 지내지만 심한 경우에는 직접 언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속상한 마

음을 해소한다고 했다.

“나는 티각티각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야. 조금조금한 것에 갈등이 있지. 내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불평을 하지. 마찰이 있거나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서 말로 털고 풀지. 그 앞에서 나는 내색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례 3)

“인제 한번씩 대들고 싸움도 하긴 하는데. 일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는 남들처럼 말 대답하고 그러지는 못해. 성격이 드센 사람은 그렇게 해봐야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나는 뒤로 나와서 이렇게 욕을 하지만 앞에서 그냥 그래 봐. 그 당시에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는데. 막말로 싸움을 해 봤자 결론은 하나야. 그래도 젊은 년 나쁘다 그러지. 노인들 나쁘다 소리는 아무도 안해.” (사례 3)

이 진술에서 살펴보면 며느리가 부당한 일에 참지 않고 언쟁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언제나 며느리에게 두는 사회적 시선(통념) 때문에 며느리가 더 고통스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하류계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⑤ 고부갈등의 해결방안

이들은 특별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사례 2)는 미래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고부관계 자체의 성격도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로 잘 살면 좋은 거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돼. 좋아질 수 있는 쪽보다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방법이 나 사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사례 2)

이 계급의 경우 다음의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부부가 생활활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지게 하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양 세대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사례 2)의 친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려운 사람들은 양로원으로 가야 한다고. 경제적 문제도 크고 인간적 문제 또한 크거든요. 자기 생활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노인이 수족까지 못쓰게 되면. 혼자 벌어서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런 경우 양로원으로 보내고 남은 인력들은 자원봉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친부모한테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만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할 수 없지만 노인의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해 일정 시간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것조차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양로원, 고아원에 봉사를 해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또한 자식들이 부끄럽지 않게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아예 생각하고. 그 대신 자기에게 여유가 한 자락 생기잖아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동네 노인들에게 투자하고 외출을 같이 해 준다든지. 친 부모에게도 악담은 하잖아요. 봉사 가서는 악담 안해요. 고마워해요. 일단은 양로원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만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고요. 부끄러워서 감추다 보면 양로원 수가 많아지지 않아요. 방치할 수밖에 없어서 방치하고 그럴 바에야 가끔 가다 오는 손이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식을 가끔 보더라도 고부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의 친구 의견)

이 해결방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부양이 사회적 규범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긴 하나 하류계급에서는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녀세대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며느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며느리의 경험을 통해 그 동안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던 하류계급의 고부관계 성격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3사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현실을 잘못 설명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류계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노부모-성인자녀가 함께 동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거 경향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중간계급 이상이 자의에 의해 분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류계급에서는 그 이유가 경제적 빈곤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하류계급의 이러한 경향은 부모-자녀 관계를 소원하게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류계급에서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에게 중간계급 이상에서 경험되는 시어머니의 권위적 행동이나 허위적 행동, 언어폭력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주로 금전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상호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상호방문 등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이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심한 고통은 겪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분거한 상태이고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생존을 위해 바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계급의 며느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진솔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심한 정신적인 고통은

겪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의 사례들은 부모-자녀라는 혈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생존 때문에 서로를 방기(放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논의에서 박부진(1994)연구나 하류계급에 관한 선행연구(김미숙, 1990)에 기초하여 세운 '하류계급은 물질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도시지역이라는 특별한 환경변수, 그리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자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핵가족 의식의 강화 등이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단정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가족관계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족관계 중에서도 특히 혈연관계가 아닌 고부관계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이 의무로 되어있는 한국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류계급의 경우 양 세대의 열악한 물질기반 때문에 고부관계가 방기상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적 측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가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는 중산층의 고부관계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가족연구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부관계는 관계의 성격상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세사람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접근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는 며느리만 면접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의 실체를 보는데 그만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부관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는 하류계급만을 다루고 있다. 물질적 대가 다른 상류계급과 중간계급의 고부관계는 이와는 아마도 다를 것이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구되기를 요망한다.

3) 일반화 논문이 아닌 탐색 논문이라 하더라도 면접 사례 수가 적다는 것은 본 연구의 큰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부계직계 가족제도 하에서의 며느리의 서열은 고부관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만며느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둘째 이하의 며느리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 지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경자(1988).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 김경동·이은숙(1992).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 3) 김미숙(1990). 중소도시지역의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격. *한국가족론*(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까지.
- 4) _____(1994). 계급별 가족과 여성.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 5) 김영란(1988). 가사노동에 대한 계급별 사례연구-신중간계급가족과 노동자계급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주희(1990). 도시저소득층의 친족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가족학연구회 편).
- 7) 김홍주(1993). 한국가족문제의 특징-기능주의 가족문제론 비판.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9집). 문학과 지성사.
- 8) 박부진(1994). 한국농촌가족의 문화적 의미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박숙자(1991). 계급연구의 분석단위: 기혼여성의 계급적 지위. *사회계층-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다산출판사.
- 10) 배선희(1997). 계급별 고부관계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5(2).
- 11) 백옥인(1994). 계급별 생활실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2) 변화순(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의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한국여성개발원) 8(4).
- 13) 송경아(1986). 고부간의 갈등원인 및 조정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14) 신광영·조돈문(1994). 노동계급의 가족형성과 친족관계. *계급과 한국사회*(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울 아카데미.
- 15)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1). *한국가족론*. 까치.
- 16) _____ (1994).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17) 유가효(1977).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원인과 실태-중류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8) 이광규(1975). 부계가족에서의 고부관계. *인류학* 논집(1).
- 19) _____ (1984).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 20) 이동원, 함인희(1992). 도시 중산층 가족. *가족학* 논집(4).
- 21)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22) 장경섭(1992). 핵가족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복지체계. *경제와 사회* 15(가을호). 11(1).
- 23) 조옥라(1990). 도시빈민 가족과 농촌 영세빈민가족의 비교. *한국가족론*(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까치.
- 24) 조 은(1990).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가족론*(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까치.
- 25) _____ (1991). 계급론과 사회적영역. *사회계층-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편). 다산출판사.
- 26) 최재석(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27) 한남재(1984).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28) 황춘선(1979) “한국 가정에 있어서 고부간의 불화요인 분석 및 그 해소방안.” 대구교대 논문집. 제15집.
- 29) Elliot, F. R.(1986). *The family:Change or Continuity?* Houndmills, Hampshire: Macmillan Education Ltd(안병철·서동인 역. 1992. *가족사회학*. 서울:을유문화사).
- 30) Gilgun, J. F., Daly, K. & Handel, G.(1992).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Newbury Park:SAGE publications inc.
- 31) Gittins, D.(1985). *The family in question*.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 32) Langman, L.(1986). Social Stratification. Sussman, M. and Steinmetz, 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york:plenum Press.
- 33) Morgan, D. H. J.(1985). *The family,politics and social theory*. Boston:Routledge and Kegan Paul Plc.
- 34) Taylor, S. J. and Bogdan, R.(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york:A Wiley-interscience Pub.